



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배포시	배포일시	2019. 11. 15. (금) 17:30
담당과장	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이형렬(044-215-7610)	담당자	김종성 사무관(044-215-7612) smilekorea@korea.kr
	대외경제국 다자경제협력팀 황희정(044-215-7710)		손아름 사무관(044-215-7711) stajr21@korea.kr

홍남기 부총리, 주한 아세안 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

□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

2019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-메콩 정상회의의
성공적 개최를 위해

- 11.15(금) 15:30, 정상회의 개최지인 부산에서
주한 아세안 국가 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
* 2019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(11.25~26일), 제1회 한-메콩 정상회의(11.27일)

- 참석자들은 ①한국경제와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,
②국가별 경제협력 현안 및 관심사항, 한-아세안 간 미래
협력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음

< 간담회 개요 >

- 일시·장소 : '19.11.15.(금), 15:30~17:00, 부산 롯데호텔*
- 참석 : 부총리(주재), 주한 아세안 9개국 대사**,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,
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,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

* 간담회 직후 대사 일정(한-아세안 푸드 스트리트 개막식 참석) 고려

** 미얀마, 브루나이, 캄보디아, 베트남, 말련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(대리) 대사/
인니 부대사 참석 / 라오스 불참

□ **홍남기 부총리**는 모두발언을 통해 '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과 아세안의 교류·협력 관계를 언급하면서

○ 한국과 아세안은 이상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앞으로의 관계 발전 가능성이 더욱 기대된다고 밝히며,

- 이번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세안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

○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을 위한 앞으로의 경제 협력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다음의 4가지 키워드를 강조함

- | |
|---|
| ● (Stability) 민간의 교역·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기반 구축 |
| ● (Solidity) 기존 협력성과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협력심화 방안을 공동 모색 |
| ● (Smart innovation) 4차 산업혁명을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 |
| ● (Sustainable cooperation)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다양한 자원 확보 지원 |

□ 이에 각국 대사들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,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러한 자리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였음

○ 특히, 향후 경제협력 방향과 관련한 4가지 키워드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, 전반적인 협력방향 뿐만 아니라 인프라·투자·관광·FTA 등 국가별 관심 분야 구체적인 협력방안까지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음

□ **홍남기 부총리**는 앞으로도 새로운 미래 협력 강화를 위해 대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,

○ 오늘 제기된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가기로 하였음

※ (붙임) 부총리 모두 말씀

1 인사 말씀

- 먼저, 바쁘신 가운데
부산까지 와주신 주한 아세안 국가 대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.
- 한국과 아세안의 큰 축제를 앞두고
새로운 역사의 현장이 될 이 곳, 부산에서
대사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
2019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-메콩 정상회의는
 -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축제의 場이자,
한국과 아세안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.
 - 이를 위해 밤낮없이 뛰고 계시는
대사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
- 정상회의가 높은 관심 속에
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일환으로
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.
 - 대사님들께 한국경제에 대해 설명 드리고
궁금하신 사항, 질문사항이 있으시면
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.
 - 또한, 한국과 아세안의 현 주소와 미래협력방안에 대해
허심탄회하게 의견 나누는 기회였으면 합니다.

- 2015년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하면서
아세안 경제권은 총인구 6억 5천만명,
GDP 2조 9천억불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가진
거대 단일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
- 매년 5%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으며,
35세 이하 젊은 층이 인구의 60%를 차지하는 등
젊고 역동적인 시장으로서
막대한 잠재력을 지닌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입니다.
- 또한, 한국, 중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 등과
각각 FTA를 체결하여
동아시아 FTA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가 하면,
 - ASEAN+3, 동아시아정상회의,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등
역내 지역 협의체를 주도하면서
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.
- 이러한 아세안의 성장 잠재력에
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,
특히, 미·중 무역갈등 등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대와
글로벌 밸류 체인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
아세안 시장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

3 | 한-아세안의 교류·협력 관계, 30년

□ 한국과 아세안의 교류·협력 관계는

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.

-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간 상호방문객은 1,1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, 아세안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방문지역이 되었습니다.
- 한국이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가 바로 한-아세안 FTA였으며, 2007년 발효후 한-아세안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2위 교역상대입니다.
- 또한, 對아세안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여 아세안은 미국·EU에 이어 한국의 제3위 해외투자 지역으로 부상하였습니다.

□ 그러나, 한국과 아세안은

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, 아시아인으로서의 유사한 정서, 지리적 이점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협력 파트너입니다.

- 더욱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독특한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차별화된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.

□ 이러한 인식 하에 우리 정부는 2017년 11월,
한-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인 **신남방정책**을 선언하였으며,
“**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**” 실현을 비전으로
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

- 먼저, **사람**(People) 중심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
한국과 신남방국가 간 인적 교류 증대를 통한
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- 둘째, **상생번영**(Prosperity)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
국가별 맞춤형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여
교역 확대 등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.
- 셋째, **평화**(Peace) 공동체 실현을 위해
아세안 국가와의 외교·안보 협력관계를 강화하여
한반도 평화 정착 등 안전한 역내 안보 환경을 구축하고자
노력하고 있습니다.

□ 이러한 신남방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
2년여에 걸쳐 우리 정상이
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함으로써
기본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하였으며,

- 금번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
한-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
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□ 한-아세안 간 새로운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
향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
제 나름대로 4가지 키워드(4S for Prosperity)를 갖고
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
① 먼저, Stability입니다.

한 아세안간 민간의 교역과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
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
- 역내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
RCEP 최종 서명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한편,
- 정부간 양자 협력채널을 활성화하고
금융협력플랫폼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
민간의 교역·투자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.

② 두번째, Solidity입니다.

기존 협력 분야의 성과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
협력 심화방안을 함께 고민해나가야 할 것입니다.

-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
아세안의 산업화와 고용에 기여하는 상생형 투자를
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
- 아울러 우리의 기술·정책경험 공유 등을 통해
아세안 국가들의 국가별 발전전략이 성공적으로
추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.

③ 셋째, Smart innovation입니다.

4차 산업혁명을 한국과 아세안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.

- 핵심 성장동력인 스마트시티 협력과 관련해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참여,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자·양자 간 후속협력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- 아울러 기구축된 4차 산업혁명, ICT 등 신기술·신산업 분야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, 벤처·스타트업 협력을 통해 역내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
④ 마지막으로, Sustainable cooperation입니다.

한국과 아세안간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 무엇보다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.

- 이에, 유무상 ODA의 안정적 재원을 확충하는 한편, 인프라 등 전통적인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ICT 등 지원 분야도 확대,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.
- 또한,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PPP(Public-Private Partnership, 민관합작투자사업)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

- 예로부터 한국인에게
남쪽은 희망과 동경의 상징입니다.
 - 집도 남향을 으뜸으로 치고
남쪽의 좋은 기운이 일을 잘 풀리게 한다고 믿어
임금이 정사를 볼 때 남면(南面)하도록 했습니다.
 - 아울러 한국 속담에는
'먼 곳 사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'는 말이 있습니다.
- 아세안은 '남쪽의 가까운 이웃'으로서
그간의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
함께 새로운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.
 -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-메콩 정상회의가
새로운 미래 30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
대사님들께서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며,
저 또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오늘 이 만남이
한국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
한 아세안간 경험관계 및 미래에 대한
서로의 통찰력과 의견을 나누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
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!